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한다. 조금은 특별한 계획으로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편집자주〉

힐링센터 개소… 마음방역 고품격 강남스타일



정순균
민선7기 강남구청장

2018년 보수 텃밭인 강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처음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정순균 구청장. 코로나19는 그의 구정 일상도 바꿔놓았다.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감염병 관리센터를 세우는가하면, 가능한 모든 분야를 '온택트'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심신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프리존설치에 이어 코엑스, 개포동 등 도심 4곳에 복합힐링치유센터도 개설중이다.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강남을 품격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구랍 15일에 구청장실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방역, 혁신적 주민복지, 힐링 치유 명상센터 개소 등 살기좋은 1등 강남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새해도 계속 이어질 포스트코로나 전략을 함께 들어봤다.

대담 · 정리=김주일 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Q 2018년 7월에 민선 7기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하셔서 현재 2년이 넘었습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지난 2년간의 구정을 자체 평가해 주신다면요?

A 지난 2년 5개월은 우리 57만 강남구민들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로 '품격 강남'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강남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강남을 깨끗히 정돈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충실히 준비하며 '뉴디자인'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 의미를 담은 스타일브랜드 'ME ME WE Gangnam(미미위 강남)'을 출범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강남의 내적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조금씩 성과가 보이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들어서 다시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강남구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1월 23일 '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하셨는데요. 설립 취지와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 들려주시지요.

A '온택트리더' 강남구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후반기부터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확대 · 개편하고 호흡기클리닉, 감염병 종합상황실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자외선살균시스템이 설치된 '비접촉 워킹스루' 형태로 설계돼 검사자에게 부여되는 'QR코드'로 대기시간을 없앴는가 하면, 역학조사서 작성부터 의사문진, 검체채취 등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자외선살균시스템과 자동 음압 · 양압제어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안전하게 진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체검사 전 과정을 전산화해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최근 폭증하는 검체검사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Q 환경과 기후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해결 문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초부터 지역 내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해 주민들이 대기 환경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등 강남구의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신걸로 압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또한 임기 후반기에 강남구의 환경 문제에 계획된 사업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취임 초부터 환경에 각별히 신경 써왔는데, 이제 환경은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하수관은 정화조의 오수와 하수가 섞여 흘러가 잔류 찌꺼기가 하수구에 쌓여 악취가 풍기는데, 지난해 그 원인을 찾아내 악취를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뒷골목 취약시설을 집중 청소해 2019년 서울시민이 평가한 '청결도시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청담역 지하철 보행구간 650m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하고 선릉, 역삼 지하보도와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에도 설치했습니다.

고품격 강남 프로젝트 큰 성과
지자체 최초, 감염병관리센터 설립
미세먼지프리존설치 전반 확대해
올해 스마트 시티 강남 원년 도약
'미미위강남' 통해 부정이미지 불식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버스 쉘터를 설치해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작업도 병행 중입니다. 테헤란로 인근 등 관내 버스정류장 10곳에 '미세먼지프리존 쉘터'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도 쉘터를 집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강남구의 미세먼지 청정구역을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특히 야외공간에 쿨링포그, 스마트 이끼타워 등 미세먼지 저감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복합주민쉼터를 조성해 기존의 지하공간 · 도로변 중심의 미세먼지프리존을 주민생활 속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Q 지난해에는 강남 스마트시티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강남의 인적자본, 투자환경, 인프라, 혁신 등 스마트시티의 요소를 잘 연결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기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이신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계획을 들려주시지요.

C2면에 계속

정순균 구청장은… 1951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기자와 부국장을 거쳐,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특보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어 국정홍보처 차장과 처장(2003년~2005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2006년~2008년)을 지냈다. 또한 2012년에는 문재인 제18대 대통령후보 언론 고문을 맡았다.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 22대 강남구청장에 재직중이다.

INSIDE

C3 인터뷰 지인 스님 기쁨정사 주지
C4~5 인터뷰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C6 인터뷰 정영자 통도사 영축문학회장
C7 인터뷰 김유진 불교굿즈 크리에이터